



웃음 머무린 '사랑의 김치' 25일 광주시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부 광주봉사센터 회원들이 1000kg 상당의 열무김치를 담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광주 지역 경로당 50곳과 취약계층 75가구에 전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공단 오염물질 꼼수배출 업체 '수두룩'

공기 섞어 오염 농도 낮추고 별도 관 연결해 폐수 방류 영산강환경청 25곳 중 18곳 적발... 대기 18·폐수 8건

#1. 여수시 화양면 I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투입시켜 섞은 뒤 외부로 배출해왔다. 배출시설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줄여 배출하는 대신 깨끗한 외부 공기를 섞어 기준치 이내로 맞춰 외부 환경으로 버려 버린 것이다. I업체는 결국 지난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단속에 적발돼 검찰로 사건이 넘겨질 예정이다.

#2. 여수시 여수산단에 입주한 S업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다가 지난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 단속반에 걸렸다. 인근 M업체 역시 폐수

를 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외부로 배출하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킨 뒤 섞어서 외부 환경으로 배출하다 지난 21일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업정지 10일 처분도 받게 된다.

석유·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여수지역 산업체 25곳 중 18개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생태법 등 환경관련 법률을 어겨가며 조업을 해온 사실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단속을 통해 25일 밝혀졌다.

'여수공기가 나쁘다', '여수에 흑비가 내렸다'는 환경단체 주장과 관련 보도가 이번 단속 결과와 일직 부분 연관성이 있

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속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이뤄졌으며, 적발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대기 18건, 폐수 8건 등 총 26건이다.

업체 상당수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켜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거나 배출시설과 별도로 관을 연결해 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작심하고서 꼼수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산강환경청이 직접 수하한 후 관할 검찰에 송치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인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위법 사실이 통보된다.

특히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여수 화양농공단지 업체들의 경우 영산강환

경청이 순회 홍보를 펼쳐 단속에 대비할 틈을 찾는데도 무더기로 관련법 위반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이 주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은 물론 단속반도 무서워하지 않고서 막가파식으로 조업한 배경에 솜방망이 처벌이 뒤따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1항제1호 등)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버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엄벌 대신 업무 진화적 처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적인 시선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수사 후 기소가 이뤄진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끝나지 않은 5·18 아픔 생생

기념재단, 6월13일까지 망월 사진전... 희생자 이장 모습 기록

국립5·18민주묘지(신묘역) 조성 20주년을 맞아 광주시립묘지 제 3묘원(5·18구묘역)에 잠든 5·18희생자들의 유해를 신묘역으로 이장하는 모습을 기록한 사진전이 개최된다.

5·18기념재단은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일구구칠 망월'이라는 사진전을 개막하고 6월13일까지 전시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전시에 선보일 사진은 사진작가 임무택 씨가 촬영한 것으로 총 200여점이다. 작가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7년 묘지 이장 당시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자식 묘 앞에서 주저앉아 한숨 짓는 노부부, 봉분 위에 놓인 하얀 국화꽃, 삼복을 입고서 봉분을 파내려가는 유가족의 모습, 유골 수습 과정 등을 보노라면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이 눈 앞에 생생할 정도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구묘역은 1980년 5월 목숨을 잃은 민주투사 등 희생자 유해 124구가 묻힌 곳이다. 구묘역은 또한 12·12군사반란을 통해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반란군 일당이 공수부대를 동원해 광주에서 학살을 자행한 후 쌓여가는 시신들을 수레와 트럭으로 실어 버리다시피 했던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1997년 5·18구묘역에서 한 유족이 이장을 위해 가족의 유골을 두 손으로 들고 보는 모습. <5·18기념재단 제공>

광주사태로 불리던 5·18은 1997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며, 법에

따라 구묘역 인근에는 국립5·18민주묘지가 조성되면서 이장이 진행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7 달뜨기 05:44
해질녘 19:14 달지기 18:56

출발하는 꽃가루
오전 한때 비가 온 후 개겠다. 예상 강수량 5mm.

지역	날씨	기온(°C)
서울	구름	13/19
대전	구름	13/18
대구	구름	11/17
부산	구름	12/18
제주	구름	12/17
충청	구름	13/20
강원	구름	14/19
경상	구름	13/20
제주	구름	12/19

지역	바다 날씨	생활지수
서해	안바다	주의
남부	안바다	식중독
남해	안바다(동)	높음
서부	안바다(서)	자외선
제주	안바다	보통

시간	기온	일출	일몰
간조	07:12	01:50	
만조	19:29	14:07	
여수	02:40	09:00	
서부	14:59	21:24	

돌봄교사 공채 반발 오체투지 시위

광주교육청 134곳 직영 전환... 고용 승계 촉구

광주시교육청이 돌봄전담사(시간제)를 공개 채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해고 위기에 몰린 기존 돌봄전담사들이 공개 채용 철회 및 고용 승계를 촉구하며 '오체투지'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초등 돌봄전담사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을 출발, 화정역과 농성역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까지 오체투지 시위를 했다.

이들은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해고 철회 요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전체 돌봄교실 286곳 중 시간제 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했던 134곳을 직영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바꾸기로 한 상태다. 고용 안정과 돌봄 교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돌봄전담사들은 오랜 기간 시험 준비를 해온 준비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점을 들어 사실상 '해고 통보'라며 반발해왔다. 이들은 시교육청 본관 현관에 '근조' 팻말을 써붙이고 점거 시위를 진행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조선대대자협 "임기 끝난 이사회 물러나라"

"국민공익형 이사회 쟁취"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는 25일 임기가 끝난 이사회 임원들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대자협은 조선대 이사회의 교육부에 대한 개방이사 추천 요청과 관련, 성명을 내고 "임기 만료된 이사들이 구성원에게 위임하라는 대자협 요구를 묵살하고 교육부에 (개방이사를) 의탁하는 폭

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한 차례 논의를 거쳐 부결된 바 있는 '교육부에 대한 개방이사 추천 요청'을 다시 꺼내 처리했다"면서 "대학 전체의 이익과 대학구성원의 권익보호는 뒷전"이라고 비난했다.

대자협은 또 "임기 만료된 이사회 임원들에 대한 퇴진과 국민공익형 이사회 쟁취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7 남도답사7번째
강진 방문의 해
VISIT GANGJIN 2017, KOREA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2017 강진 방문의 해

가갸라! 전남강진

강진 지명 탄생 600주년 / 전라병영성 축성 600주년
다산 경제유포 저술 200주년 / 고려청자 재현 성공 40주년

가우도 출렁다리
청자타워 / 집트랙